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그대를 크게 세우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이자가 요건 없는 평생
대입에는 특별장려로
●교육자금 주택자금 경조사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용서비스 제공
문의처: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환/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구로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학·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사물에 실패한 기업주나 입시에 시달리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최근 인기를 누리던 가수들이 잇따라 자살했다. 이를 계기로 생명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 (편집자 주)

어떠한 생명든지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도 저마다 소중히 여긴다. (상봉부)

그들을 내뿜고 비교해 보아라. 산 생명을 죽여서는 안된다. 또 남을 시켜 죽이게 해서도 안된다. (숫타니파타)

사물은 생물을 죽이지 않고, 생물을 죽이게 하지 않으며, 생물을 죽이는 일에 함께 하지 않는다. (중이한 우담비리경)

목숨 있는 것을 제가 죽이거나 수단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띄워 죽여도 안된다. (범명경)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하지 말라. (대법구경)

보살은 항상 자비스런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웃)을 구원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방자한 생각과 통쾌한 마음으로 산것을 죽인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범명경)

금생에 괴로우면 내세에도 괴로움을 받는다. 이 괴로움

부처님의 재차 박칼리가 자살을 했다. "박칼리의 몸을 싸고 사방을 도는 어두운 모양을 보는가? 이것은 악마의 형상이다. 이것은 박칼리의 식신(識神)이 장차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찾으려서 돌아 다니는 것이다. 박칼리의 식신은 머무르지 않는다. 칼로써 자살하였기 때문이다." (박칼리경)

너는 인간에 있을때 아이들이 살생하고 고기먹는 것을 듣거나 기뻐하였으면 살생한 까닭에 목숨이 짧고 기뻐한 까닭에 괴로우니라. 이제 똑같은 과보를 받고 지옥에 들어가리라. (귀문록연경)

한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두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을 해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숫타니파타)

욕심으로 화병으로 여러적 음으로 인하여 산 것을 죽인다는 것은 모두 그 죄가 크다. (장법남처경)

관련기사 2면

인사 고과제 의제법 개정 종무원 포살법회

조계종 수행풍토 새바람

종무행정 혁신·신도증 발급...2억 고료 불교문학 공모도

조계종은 신년부터 승종진작과 신명 및 종무행정 혁신을 단행키로 해 고계 수행풍토의 새바람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은 지난 16일 중앙종무기관 신년계획 기자회견에서 의제에 따른 승가위계질서를 새우는 한편 중앙종무원을 대상으로 포살법회를 가지며 본말제 주지 임용규정을 제정 인사고과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종무계획에 따르면, 조계종은 종무원제의 혁신(종무원), 승가 교육기관의 재편(교육원), 청소년교회의 활성화(포교원)를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승중은등전개 △각종 업무편람제 작 △침사건립 △학림·특수학교개설 △대정부 현안문제 해결 △불교방송국 지방방송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종무원장 일주스님은 "승종진작을 위해 종무원에서 매달 마지막날을 정해 정기적으로 포살법회를 실시해 수행



"스님들도 긴장" 96년 대학입시에 눈부신 남자들도 도전장을 냈다. 지난 18일 동국대 불교대학에 지원한 20명의 스님들은 스스로를 '학교 대중을 교화하겠다'는 임팩트로 혼신을 다해 시험에 응했다. (동국대=고영배 기자)

종도에 모범을 보여며 이를 본 말사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문화되어 있는 의제법을 개정하고 빠르면 금년내에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의 의제를 바꾸어 의제에 따른 위계질서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계종이 밝힌 신년 종무계획 가운데는 인사·재무행정 혁신으로 종무기관의 제자리 찾기를 시도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조계종은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 이달중으로 본말사주지임용규정을 입법고하고 수행, 포교실적, 재교육현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승장부를 개정해 인사고과제도를 정착할 방침이다.

재무행정으로는 중앙종무기관의 전산망구축(LAN)이 완료되는 2월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해 정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단경영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조계종이 종무원제의 산에 역점을 두고 있는것은 지난해 교육·포교부문의 집현화로 3원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행정업무를 정상화시켜 명실상부한 집행부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한편 일주스님은 "문학의 해를 기념해 시, 소설, 시나리오, 평론 등 전반에 걸쳐 2억원의 료로 불교문학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고속철 경주통과 반대 서명 15만명

백지화추진위, 명단·우회노선 청원서 대통령에 곧 제출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추진위원회(추진위)가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만에 1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6일 현재 15만 4천7백53명에 이르며, 후원성금도 3천27만원이 모였다. (관련기사 2·14~18면)

추진위원회는 반대서명이 15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이후에는 결의대회 경기대회를 비롯 한 대중집회, 인터넷을 통한 세계각국의 협조 의회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대해 이기영 추진위원장은 "공교로 문화예술계 학계 재계의 지도급인사들을 추진위원으로 영입, 조직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서명운동이 주목적이었다면 이후에는 경주통과 반대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명부를 정부 대통령과 국무총리 건교부장관 문체부 장관 국회의장에게 곧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명에는 수석사 방장 원담 스님과 율주 조계종총무원장 등 불교계 지도급인사와 2백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특히 천태종은 3만3천여명이 서명에 참가해 종단의 조직적인 참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각계의 성명도 잇따랐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경주도심 15Km밖 우회노선을 정부추에 제시해놓고 있다.

현대불교 인도 성지순례단 모집 4차 2월 4일 출발

"새해 성도절을 부처님 땅에서..."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4대 명승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남인 성도절을 부처님 땅 인도에서 맞이하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80 생애를 고스란히 간직한 인도성지는 불교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자비의 실감이 무엇인지 일깨워줄 것입니다.

1월 초순부터 준비해온 본행사는 현재 불자들이들의 성원으로 3차까지 마감되고 4차 순례단을 모집중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 찬 : 해초여행사(성지순례전문업체)
여행장소 : 인도-네팔(뉴아인, 보드가아, 라지키르, 바이살리, 루시나기라, 가일점사, 롬비나등)
기간 : 9박 10일(4차-8차 9일)
참가비 : 155만원(4차-148만원)

접수미감 : 선착순
출발일정 : 1차/96. 1. 17 접수마감, 출발 2차/96. 1. 24 접수마감 3차/96. 1. 31 접수마감 4차/96. 2. 4 접수중
여행조건 : 1급 호텔, 1급 관광버스, 전문 안내원 동행, 현지 전문 요리사 동행
미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지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737-8881

성도절 특집

깨달음을 주제로 한 지상법석 10·11면
불교 성지 보드가아 사진순례 9면
네팔 세츄 린포체 특별인터뷰 3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한보첼렌저! - 도전하는 사람이 역사를 만든다②

미래도전자

세상에서 가장 독창적인 사상의학(四象醫學) - 21세기를 준비하는 한보인의 의지입니다.

진취적인 연구로 건강사회를 연 이제마!
군수도 마다하고 의학연구에 몰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자를 제철에 따라 내외로 나누고 그에 맞게 써야 할 약의 종류와 처방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이제마. 그는 (동의수세보원)에서 민족의학의 주체성과 현대의학에서도 보기도 못한 환자중심 의학의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미래도전자로 풍요한 삶을 열어가는 한보!
한보는 일찍부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사회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경영을 펼쳐 왔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맞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개발에 앞장섭니다. 청강,건설,에너지에서 제약,환경,교육에 이르기까지 - 이제, 한보가 더 큰 21세기를 향해 도전합니다. 국민과 함께 풍요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한보그룹

21세기에 도전하는 한보, 한보인	철 강	한보철강이 뜨거운 불속에 내인의 불꽃 화염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건설	에너지	최고의 안전, 행사의 사막에서 에너지 내국의 불을 확산, 일하며 갑니다.
제약	정보	한보제약은 구명하고 있는 한보정보통신이 미래 정보와 산업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교육	공학	한보대학교는 사학의 공신입니다. 사학의 공신입니다. 사학의 공신입니다. 사학의 공신입니다. 사학의 공신입니다.

1821년 조선말 한의학자, 이제마가 저술했던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4권 2책). 이책에서 제창한 사상의학은 동양의학의 독자적인 민족 의학의 기틀을 세웠으며 사람의 체질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나눴다.